

# 유가·광물·곡물가 '폭탄' ... 한국경제 신음

## 철광석 원자재·콩·옥수수 등 연쇄 폭등 밀가루값 34% 올라 ... 라면 사재기 초래 새정부 물가관리·경기운용 어려움 클듯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증가기준 배럴당 100달러(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기준)선을 넘는 등 다시 폭등 조짐을 보이며 우리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고 있다.

국내 도입원유의 기준가격인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90달러를 넘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철광석을 비롯한 여러 원자재와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수입물가를 통해 고스란히 국내 경제에 반영되면서 서민 생활과 심화되고 있고 새 정부의 물가관리와 경기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원유·광물·곡물 연쇄 폭등 =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100.01달러를 기록했고 국내 도입원유의 기준가격인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 역시 1.05달러 오른 91.61달러 선에 가격이 형성됐다.

가격급등은 여러 광물도 마찬가지여서 브라질 광산업체 발레는 지난 18일 포스코, 신일본제철에 공급하는 철광석 가격을 오는 4월 1일부터 1당 78.88달러로 현재보다 무려 65% 올리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폭설사태로 중국산 유연탄 수출이 일시 정지되고 이후에도 수출물량이 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연탄 계약가격도 지금의 두 배 가까이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상변화에 바이오 연료는 대규모 수요처가 등장한 곡물은 가격 움직임 원유나 광물보다 더 심각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카고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선물가격은 대두가격이 95.8%, 밀은 79.9%, 옥수수는 25%나 올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제분업체는 밀가루 가격을 24~34%나 올렸고 이달에는 그 후폭풍으로 라면, 제과업체들이 10%가 넘는 가격인상을 단행해 전국 대형마트에서 라면 사재기를 볼수있었다.

◇ 물가·무역수지 '비상사태' =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폭등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충격을 완화할 묘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이다.

정부는 주요 원자재의 매점매석 단속이나 수입관세율에 할당관세 적용 등 미시적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치솟는 원자재가, 임금 등 원가 상승을 반영한 '중국발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악영향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물가와 무역수지

가 가장 먼저 충격을 받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로,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넘어 3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1월 수입물가는 9년3개월만에 가장 높은 무려 21.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무역수지도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80달러대에 이른 지난해 12월 57개월만에 처음 8억6천만 달러 적자를 낸 데 이어 1월에는 적자가 33억8천만 달러로 급팽창했다. 1월 하순 하향 기조를 보이던 유가가 재급등한 2월도 낙관이 힘들어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대의 악재가 갈수록 강도를 더하면서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간 성장률 6% 달성은 물론 5%를 지키기도 힘들어졌다.

## 자금난 건설사에 '단비' 금융권 유동화 채권·대출 만기 연장

금융권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대해 자율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주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유동화채권과 대출의 만기가 1년 까지 연장되고 건설업체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대 규모인 12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미분양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6개 시중은행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을 확정하고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300여 개 금융기관에 협약 가입 여부를 묻는 '가입확인서'를 보냈다.

은행연합회는 25일까지 답변을 받아 29일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금융기관들의 답변이 지연될 경우 시행일이 늦추릴 가능성도 있다. 지원대상은 재무구조가 양호하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 및 관련 시행사, 신용등급은 되도록 'BBB-'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중견 건설업체까지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대출 및 업체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채권에 대해 주채권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을 결정하면 다른 채권 금융기관도 연장을 해야 한다.

## 국제유가 또 100달러 넘어

WTI 100.01달러 ... 4.51달러 ↑



중에 걸린당 2.6169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국제유가 급등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이날 5일 열리는 회의에서 감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텍사스 빅스프링에 있는 앨튼USA의 정유소가 폭발사고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복합적인 공급 감소 우려가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학 새내기 봄옷 유혹  
대형 매장 열려 온누리 고객들이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여성매장내 플라스트릭 아일랜드·시스템·바날라·ENC 등 브랜드가 대학 새니기를 위한 캐주얼 캐치, 비즈니스 정장을 등을 선보이자 고객들이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

## 광주지역 기업 고유가에 '허우적'

손익분기점 87.3달러 넘어서 채산성 악화

최근 유가급등으로 광주지역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가 최근 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유가전망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지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94.2달러, 손익분기점 수준 유가는 87.3달러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현재 국제유가가

91.6달러를 기록하는 등 유가가 손익분기점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상당수 지역기업들이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하반기 중 지역기업들의 유가상승에 따른 원자재·부재료비, 물류비, 관리비 등 원가상승 정도는 "10~19% 상승(48.0%)", "가장 많았으며, "10% 미만 상승(39.0%)", "20~29% 상승(8.0%)", "30% 이상 상승(2.0%)" 등이었다.

고유가 대책으로는 '제품단가 조정(42.9%)'에 이어 '사내 에너지 절약캠페인 실시(39.3%)', '에너지 비용을 설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강화(37.5%)', '저가 원·부자재로 대체(23.2%)', '임금동결이나 고용축소 등 감축경영(23.2%)', '아웃소싱 확대(8.9%)'를 꼽았다.

또 응답업체들은 정부정책과제로 58.3%가 '유류세 인하와 관련세금 감면확대'를 꼽았다. '대체에너지 개발·자원 외교 강화(17.5%)', '세계·자금 등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강화지원(10.7%)',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상승압력 완화(9.7%)' 등이 뒤를 이었다.

## '고유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 기업들 수익성 감소 '울상' 대체에너지株 '웃고' 운송株 '울고'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증가 기준 100달러를 넘어면서 증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그 충격이 크지 않더라도 국내 기업의 비용 증가, 미국의 경기둔화 및 달러 추가인하에 대한 부담감, 중국의 건축정책 강화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서서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유가 급등, 여러 측면에서 증시에 부정적" = 유가 100달러 돌파는 최근 국내 증시의 반등 추세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줄어든 데다 국내 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견조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의 급등 추세는 이 두 요인 모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우려되는 것은 원유, 곡물, 철광석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갈수록 커져 FRB의 금리인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의 수익성 감소도 불가피하다.

◆ 업종별 '희비' 엇갈려 = 고유

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은 증시에서 '고유가 수혜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표적인 수혜주는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대체에너지 관련 주식을 들 수 있다.

삼성증권의 송준덕 애널리스트는 "세계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태양전지 제조에 필요한 폴리실리콘, 모노실란 등을 제조하는 국내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유가도 막대한 오일달러를 벌어들이는 중동 국가가 발주하는 대규모 플랜트 및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를 수주할 역할을 지닌 국내 건설·플랜트업체도 수혜주로 꼽힌다.

조선 부문에서는 고유가도 인해 심해 석유시추선 등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 선박 제조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반면 화물 운송에 석유를 주요연료로 사용하는 항공이나 해운업체 그리고 주재료가 원유인 석유화학업종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밖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 더해 고유가의 파장으로 미국의 경기둔화가 가속화될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나 IT업종도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SK텔레콤 '제2 통신 공룡' 거듭난다

하나로 인수 ... 800MHz 주파수 사용권도 지켜

SK텔레콤이 800MHz 주파수 사용권을 지키며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인가했다.

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

치한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로밍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전파 자원 효율성을 고려해 이번 건과 별도로 정부부가 후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

치고 유·무선을 아우르는 제2의 통신공룡으로 거듭나게 됐다.

다만 정통부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을 구축하는 계획을 제출, 승인 받도록 하는 등 6가지 인가 조건을 제시했다. 계열사에 대한 우선적인 재판 매 제고를 금지하고, 계열사와 달리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건도 주어졌다.

## 2005년 이후 경제 법률 재개정 사례 '시장진입 제한' 최다

2005년부터 3년간 정부 각 부처가 제 개정을 추진했던 법이나 시행령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들어있어 수정된 사례가 79건에 달하며 이중 시장의 진입을 제한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2005~2007년 정부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협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면서 이를 분석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보내 향후 법 제 개정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년간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해당 부처가 이를 반영한 것은 총 79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진입제한이 17건(2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활동 제한 14건(17.7%), ▲가격제한 10건(12.7%), ▲소비자보호 10건(12.7%), ▲중복규제 13건(16.4%), ▲공동행위 허용 5건(6.3%), ▲기타 10건(12.7%) 등의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진입 제한의 경우 공정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 대우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정 은행에 독점 위탁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다른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활동 제한의 경우에는 관세사법 개정안 중 관세사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만 통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 지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서울황궁여행사	여행사무원 경력직 사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2/21	062-225-3636
(주)엠비스콜센터	하나로텔레콤 콜센터 고객센터(120명)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1	062-609-8561
원시스템(주)	경리/회계/사무관리 직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2/22	062-384-1161
월드뷰페	이벤트행사 및 출장연회 담당 매니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2	062-251-7800
(주)한성M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500	02/22	062-350-8860
(주)오에이나라	컴퓨터 사무기기 A/S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1년	1600~1800	02/23	062-224-6073
(주)진호	배송 및 관리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5	062-265-6250
(주)엔지테크	[광주/서울/부산] 프로그램 개발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6	062-675-8750
한진기계(주)	환경플랜트(도장부스),기계제작, 설비, 생산관리,설계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2/26	062-511-0789
한국씨스템티커인쇄사	인쇄기술자/편집디자인/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7	062-525-9400
엘리디자인(주)	전산회계(더존) 입력 및 사무관리,문서수발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2/28	062-602-7847
위너	자재관리,생산관리,품질관리,연구원(CATIA5사용가능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1-362-0789
(주)삼명	관리부 신입 및 경력사원(전남광역시)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1-794-3250
남평미대병원	2008년 행정과/지원과/간호과/사회복지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1-339-9000

(광주직접콜 512-6210 제공)